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인상담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탐색적 연구

홍 은 애 오 경 자[†]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2년 간 소년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3호 처분을 받아 서울지역의 한 보호관찰소에 의뢰된 청소년 총 340명 중, 가족상담실에 의뢰되어 월 1회 정도 자원봉사자의 상담을 받은 상담집단 174명과 관례적인 보호관찰직원의 면담을 받은 비상상담집단 256명의 재비행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재비행율에서는 상담집단(31%), 비상상담집단(39%)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담집단과 비상상담집단에서 각각 재비행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함수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담집단에서는 연령과 비행력 유무가 중요한 변수로, 비상상담집단에서는 최초비행연령과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주요어 : 비행청소년, 개인상담, 재비행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 문화적, 제도적 및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근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청소년 비행의 발생 자체

의 예방과 함께 재범의 방지, 즉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로 지속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대처방안은 궁극적으로 얼마나 재범 방지에 성공적이었는가를 통하여 평가될 수 있다. 1998년도 우리 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 경 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번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FAX : 365-4354 / E-mail : kjoh@yonsei.ac.kr

라 소년범죄자 중 재범자의 비율은 32.8%로 이는 1994년의 21.4%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 수치이며, 전과 3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율도 1998년의 3.4%에서 1998년의 9.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 이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재범의 방지에도 효과적이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고 전통적인 개인상담을 비롯하여 인지행동치료(Dodge, 1989; Kazdin, 1996), 가족 치료(Henggeler, Schoenwald, Borduin, Rowland, & Cunningham, 1998), 부모 훈련(Eyberg, 1988; Forehand & McMahon, 1981) 등 다양한 개입방안들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Kazdin, 1995). 특히 이미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억제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청소년 비행은 그 원인과 동기에서 성인의 범죄와 달리 심리적 미성숙으로 인한 판단력 및 자제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성숙과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크리라는 가정 하에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입은 처벌보다는 심리적 성숙과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은 반사회적 행동유형을 유지하도록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반사회적 행동유형을 학습하게 함으로서 도리어 재범율을 더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Buchler, Patterson, & Furniss, 1966; Furniss, 1964; Mulvey, Arthur, & Reppucci, 1993; Tate, Reppucci, & Mulvey, 1995), 이에 대한 대안이

다각도로 탐색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치료적 개입방안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근래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상담이 실시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상담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로 동일하게 간주될 수는 없으나 현재의 제한된 여건 안에서 보호관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시도되었으므로 그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비행청소년을 위한 개입방안의 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상담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율을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의 재비행율과 비교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2년 간 소년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3호 처분을 받아 서울지역의 한 보호관찰소에 의뢰된 청소년 총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호관찰 1.3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보호자 혹은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가 위탁된 상태에서 2년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사회봉사명령 혹은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기간 중 보호관찰이 시작된 1.3호 보호처분 청소년 중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총 405 명으로, 그 중 지능검사 등 심리검사 자료가 미비한 사례를 제외하고 총 340명이 이 연구의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 대상이 된 340명 중 174명(남 149명, 여 25명)은 상담실에 의뢰되어 자원봉사자에 의한 상담을 받았고(상담집단), 나머지 166명(남 157명, 여 9명)은 상담실에 의뢰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직원이 면담하였다(비상담집단). 상담집단과 비상담집단을 인구학적 변인에서 비교한 결과, 성비, $\chi^2(1, n=340)=2.78$, 연령 분포, $\chi^2(2, n=340)=.43$, 학력분포, $\chi^2(3, n=340)=3.27$, 부모상황, $\chi^2(3, n=340)=5.71$, 아버지의 학력, $\chi^2(3, n=340)=2.82$, 및 어머니의 학력, $\chi^2(3, n=340)=2.87$, 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상담 및 비상담집단은, 비행력 유무, $\chi^2(1, n=340)=.01$, 최초비행연령분포, $\chi^2(1, n=340)=1.57$, 및 지능수준의 분포, $\chi^2(2, n=340)=2.86$,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보호관찰관의 평가 결과 재비행위험성이 높고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류된 주요관리대상자와 재비행 위험성이 낮고 보호관찰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일반관리대상자의 비율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1, n=340)=0.00$. 그러나 상담집단은 비상담집단에 비하여 조기 가출(15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chi^2(2, n=340)=6.69, p<.05$, 폭력과 약물 등 심각한 비행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chi^2(5, n=340)=20.53, p<.01$.

절차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보호관찰 청소년 340명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와 함께 2년의 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비행 여부에 관한 자료를 보호관찰기록에서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학력, 가족상황, 부모의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최초가출연령, 비행종류, 비행력, 최초비행연령, 지능검사 및 보호관찰관의 분류등급에 관한 자료가 조사되었다. 아울러 상담집단에 관해서는 각 사례에 대하여 상담자의 연령, 학력, 그리고 상담기간과 상담횟수를 조사하였다. 재범 여부는 경찰, 검찰 및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소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처분 2호부터 7호 및 교도소 수감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를 재비행으로 분류하였다. 보호처분 1호는 사안이 경미하여 보호자 혹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처분이므로 보호처분 1호만 받은 경우는 재비행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담집단 및 비상담집단에서의 배정은 보호관찰관이 면담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 내의 가정상담실로 의뢰됨으로서 이루어졌다. 상담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수개월 내에 시작되었으며 청소년 본인이 상담을 원하지 않아 임의로 중단하거나 재비행으로 인한 기소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상담이 중단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호관찰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경우 상담은 보호관찰소 내의 상담실을 이용하여 월 1회 50분간 시행되었으며, 상담에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담에 3회 이상 계속하여 불참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상담집단 174명 중 상담횟수가 1-5회인 경우가 47명, 6-10회가 35명, 11-15회가 31명, 16-20회가 37명, 그리고 21회 이상이 24명이었다.

상담은 총 34명(남 3명, 여 31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자원봉사상담자 34명

중 16명은 자원봉사관련 사회단체를 통하여 연결된 비전공 상담자였고, 나머지 18명은 심리학, 사회복지, 교육학 등 관련전공 대학원 학생 14명이 포함된 관련전공 상담자이었다. 사회단체를 통하여 연결된 비전공상담자들은 상담에 앞서 3개월 간 간략한 교육연수를 받은 후 상담에 투입되었다. 또한 모든 상담자들에게는 월 1회 정기적 사례자문회의를 통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결 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보호처분 1,3호를 받은 비행청소년 340명 중 2년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을 한 비율은 35%로, 약 세 명 중 하나가 재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상담이 없이 관례적인 보호관찰관과의 지도 감독을 받은 비상담집단의 경우 전체적인 재비행율은 39%이었고, 2년 간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원봉사자의 개인상담을 받은 상담집단 174명의 재비행율은 31%로 두 집단의 재비행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1, n=340)=2.44$.

상담집단과 비상담집단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비행율을 성별, 학력, 가족상황, 부모의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보호관찰관에 의한 주요관리대상 분류여부, 비행력유무, 비행유형, 최초비행연령, 최초가출연령 등에 따라 나누어 비교한 결과가 표 1에, 그리고 집단별 평균연령과 지능지수가 표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비상담집단의 경우, 재비행율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본인의 학력과, $\chi^2(3, n=166)=15.12$, $p<.01$, 최초가출연령이었다, $\chi^2(2, n=166)=9.36$, $p<.01$. 즉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혹은 졸업한 경우에는 재비행율이 현저하게 낮았으

며, 15세 이전에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에 재비행율이 높았다. 상담집단의 경우에도 비상담집단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경우에 재비행율이 현저하게 낮았고, $\chi^2(3, n=174)=9.54$, $p<.01$, 15세 이전에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에 재비행율이 높았다, $\chi^2(2, n=174)=6.46$, $p<.01$. 상담집단에서는 위의 두 변인 이외에 연령과, $F(1, 172)=9.62$, $p<.01$, 비행력 유무도 재비행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chi^2(1, n=174)=4.88$, $p<.05$. 구체적으로 재비행을 하지 않은 집단은 재비행집단에 비하여 나이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과거에 비행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 개인상담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비행력이 없는 초범집단에 특히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외의 성, 연령, 가정환경, 부모교육수준, 비행유형, 최초비행연령, 지능수준,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분류등급 등은 재비행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인구학적 변인 및 지능, 비행유형 등 변인과 상담여부의 재비행 예측에서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판별분석(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상담집단), 그리고 표 4(비상담집단)에 제시되어 있다.

상담집단에서 판별함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연령과 비행력 유무이었으며, 판별함수의 lamda값은 .892($p<.01$)로, 사례의 65.5%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비상담집단에서는 최초가출연령과 어머니의 학력이 판별함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판별함수의 lamda값은 .832($p<.01$), 분류정확율은 69.5%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상담집단 청소년들의 실제 상담횟수 및 기간은 1회에서 21회 이상까지 다양하였다. 상담집단 청소년들이 실제로 받은 상담횟수와 재비행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그림 1), 상담회기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재비행율이

표 1. 상담집단과 비상상담집단의 인구학적 및 비행특성에 따른 재비행을 비교

명(%)

		상담집단		χ^2	비상담집단		χ^2
		재비행	비재비행		재비행	비재비행	
성별	남	50(32.7)	105(67.3)	3.08	63(40.1)	94(59.9)	1.14
	녀	4(16.7)	21(83.3)		2(22.2)	7(77.8)	
학력	초졸, 중퇴	19(32.2)	40(67.8)	11.07**	33(47.8)	36(52.2)	15.12**
	중재, 중졸	20(42.6)	27(57.4)		16(47.1)	18(52.9)	
	고교중퇴	12(35.3)	22(64.7)		14(40.0)	21(60.0)	
	고재, 고졸	3(8.8)	31(91.2)		2(7.1)	26(92.9)	
가족 상황	부모 동거	27(26.5)	75(73.4)	2.45	30(32.3)	63(67.7)	5.88
	이혼/별거	17(37.0)	29(63.0)		19(42.2)	26(57.8)	
	부사망/모사망	9(39.1)	14(60.9)		10(58.8)	7(41.2)	
	부모사망/가출	1(37.0)	2(66.7)		6(54.5)	5(45.5)	
부학력	초졸	13(36.1)	23(63.9)	1.82	21(58.3)	15(41.7)	7.37
	중졸	10(27.8)	26(72.2)		9(37.5)	15(62.5)	
	고졸	21(32.3)	44(67.7)		23(31.5)	50(68.5)	
	대졸	2(16.7)	10(83.3)		4(36.4)	7(63.6)	
모학력	초졸	15(31.3)	33(68.8)	.61	17(45.9)	20(54.1)	6.95
	중졸	19(35.2)	35(64.8)		20(41.7)	28(58.3)	
	고졸	14(28.6)	35(71.4)		14(24.1)	44(75.9)	
	대졸	1(25.0)	3(75.0)		0(0)	2(100)	
분류	주요관리대상	10(23.3)	33(76.7)	1.61	20(48.8)	21(51.2)	2.12
	일반관리대상	44(33.6)	87(66.4)		45(36.0)	80(64.0)	
비행력	유	47(35.3)	86(64.7)	4.88*	51(40.5)	75(59.5)	.38
	무	7(17.1)	34(82.9)		14(21.5)	26(65.0)	
비행유형	폭력	18(33.3)	36(66.7)	3.53	17(37.0)	29(63.0)	4.85
	절도	19(38.8)	30(61.2)		38(45.8)	45(54.2)	
	강도	2(28.6)	5(71.4)		0(0)	2(100)	
	성폭력	9(23.1)	30(76.9)		2(25.0)	6(75.0)	
	약물	3(30.0)	7(70.0)		7(31.8)	15(68.2)	
	윤락 등	0(5.7)	5(3.0)		1(20.0)	4(80.0)	
최초 가출연령	15세 이하	28(42.4)	38(57.6)	6.46*	40(51.3)	38(48.7)	9.36**
	16세 이상	8(25.0)	24(75.0)		12(31.6)	26(68.4)	
	가출 안함	18(23.7)	58(76.3)		13(26.0)	37(74.0)	
최초 비행연령	15세 이하	25(35.7)	45(64.3)	1.20	32(41.0)	46(59.0)	.21
	16세 이상	29(27.9)	75(72.1)		33(37.5)	55(62.5)	

* $p < .05$. ** $p < .01$.

표 2. 집단별 연령과 지능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담집단		F	비상담집단		F
	재비행 (n=120)	비재비행 (n=54)		재비행 (n=101)	비재비행 (n=65)	
연령(연)	16.28(1.34)	17.02(1.34)	9.62**	16.66(1.64)	17.07(1.51)	2.72
지능지수	92.20(16.09)	92.42(16.09)	.01	91.49(14.69)	91.15(15.55)	.02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상담집단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계적 판별함수분석의 결과

예측요인	단계	단계별 lamda	판별함수와의 상관관계
연령	1	.945 ***	.694
비행력유무	2	.892 ***	.513
최초비행연령			.576
학력			.382
최초가출연령			.191
가족동거상황			.179
모학력			.074
부학력			.038
지능			-.009
Eigen값	.121		
설명변량	100%		
정준상관	.328		
lamda 값	.89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비상담집단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계별판별함수분석의 결과

예측요인	단계	단계별 lamda	판별함수와의 상관관계
최초가출연령	1	.902 ***	.731
모학력	2	.832 ***	.729
학력			.362
최초비행연령			.277
연령			.267
부학력			.255
가족동거상황			.190
지능			.128
비행력 유무			-.027
Eigen값	.202		
설명변량	100%		
정준상관	.410		
lamda 값	.832**		

* $p < .05$, ** $p < .01$, *** $p < .001$.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chi^2(4, n=174)=29.17, p < .001$. 비상담집단의 재비행을 39%에 비하여 상담이 1-5회에 그친 경우의 재비행율은 57.4%로 도리어 더 높았으나 상담이 11회 이상 지속된 집단에서는 비상담집단보다 재비행율이 낮아졌으며, 21회 이상 지속된 집단 중에서

는 8.3%만이 재비행을 하였다. 상담집단 내에서는 상담이 오래 지속될수록 재비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을 통한 지지적 관계의 유지가 재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재비행을 하는 경우 상담자나 내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담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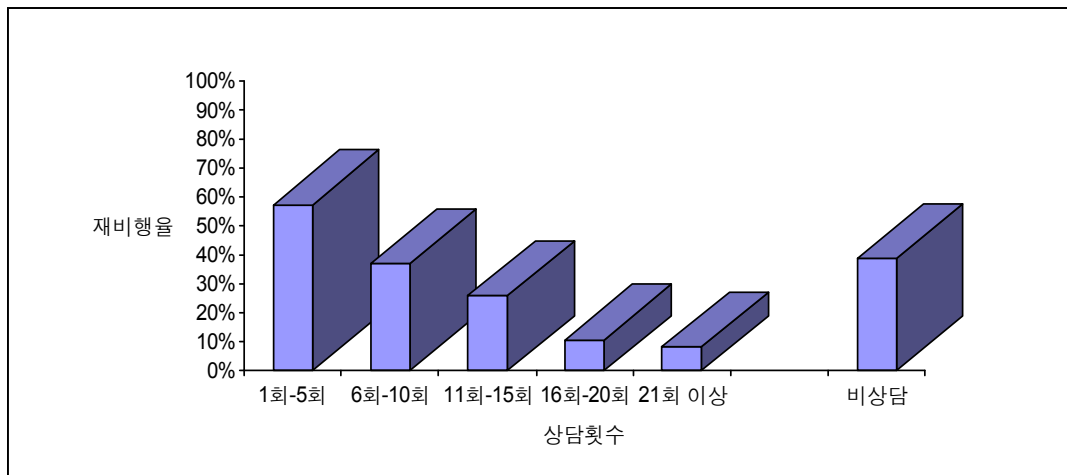


그림 1. 상담횟수에 따른 재비행율

단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 상담이 재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기보다는 재비행이 상담의 조기종결의 원인이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논 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개입방안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국내에서도 발표된 바 있으나(예, 김경미, 1998; 노안녕, 1983; 박미숙, 1999; 류수진, 1998; 천성문 이희백 이영순, 1994; 허재홍, 1995; 황용대, 1992), 대부분의 경우 소수의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자아개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의 대다수는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현장 연구의 성격보다는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앞선 예비연구의 성격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부 보호

관찰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자원봉사 상담자에 의한 개인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으로써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1.3호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 집단이 2년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을 할 비율은 35%로 약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다시 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자에 의한 월 1회 정도의 개인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비행율은 관계적인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은 청소년들에 비하여 낮았으나(31% vs. 39%),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인상담이 전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범율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상담을 받은 집단이나 받지 않은 비상담집단이 공통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청소년, 그리고 조기 가출경험이 없는 경우에 재비행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상담 집단에서는 추가적으로 19세 이상 집단과 비행력이 없는 청소년의

재비행율이 특히 낮아 개인상담경험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넷째, 재비행 집단과 재비행을 하지 않은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판별함수분석을 한 결과, 비상담집단에서는 최초가출연령과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상담집단에서는 연령과 비행력 유무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이 개인 상담을 통하여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섯째, 보호관찰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은 집단은 재비행율이 현저하게 낮아 이들에게는 상담을 통한 지지적 관계가 재비행 억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 집단은 치료자와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동기 수준이 낮으며 자기성찰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개인심리치료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Valliant & Perry, 1985). 특히 개인심리치료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심리적 성숙이 재비행의 억제라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는 매우 드물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Greenwood & Zimring, 1986). 본 연구에서의 상담적 개입은 상담자의 전문성이나 치료의 강도로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에서는 재범율 감소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담집단과 비상담집단의 재비행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비행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행 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적 개입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개인 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장기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상담이 도리어 역기능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cCord(1982)는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상담을 받은 남자아동 253명을 중년이 된 후에 추적한 결과 상담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범죄기록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Gersten, Langer와 Simcha-Fagan(1979)도 뉴욕의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도리어 더 높은 재비행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상담 혹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더 높은 재비행율을 보인 것은 보다 심각한 비행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상담집단에 배정되었을 가능성 등 연구방법상의 문제로 설명될 수도 있으나(박광배, 199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위 “문제가”라는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되어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적 및 치료적 개입이 재비행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전에 계획된 평가연구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실행된 바 있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사후에 평가한 연구이어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상담집단과 비상담집단이 무선배정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상담집단 내에서의 상담자 배정 또한 무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상담과 비상담집단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상담집단에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구학적 변인이나 기타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으나, 그 이외의 중요한 특성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두 집단의 재범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이론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집단 배정 및 상담자 배정이 모두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주요한 관련변인이 통제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1988). 비행청소년을 위한 자기노출훈련 프로그램. *지도상담*, 13, 73-114.
-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수진 (1998).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집단 프로그램의 적응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숙 (1999). 해결중심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문제해결력이 미치는 효과 및 상담효과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광배 (1995). *법심리학*. 정민사.
- 천성문, 이희백, 이영순 (1994).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유형별 집단상담 효과 비교. *영남대 학생연구*, 25(1), 16-33.
- 허재홍 (1995). 비행유형에 따른 구조적 집단 상담의 효과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용대 (1992).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도덕수준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uehler, R. E., Patterson, G. R., & Furniss, J. M. (1966). The reinforcement of behavior in institutional setting.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 157-167.
- Dodge, K. A. (1989). Problems in social relationships. In E. J. Mash & R. A. Barkely (Eds.), *Treatment of childhood disorders* (pp.222-244). New York: Guilford Press.
- Eyberg, S. M. (1988).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Integration of traditional and behavioral concerns.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10, 33-46.
- Forehand, R. L., & McMahon, R. J. (1981). *Helping the noncompliant child: A clinician's guide to parent training*. New York: Guilford Press.
- Furniss, J. M. (1964). *Peer reinforcement of behavior in an institution for delinquent girls*. M.A. Thesis. Oregon University.
- Gersten, J. C., Langer, T. S., Simcha-Fagan, P. (1979). Developmental patterns of types of behavioral disturbance and secondary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7, 132-149.
- Greenwood, P. J., & Zimring, F. (1985). *One more chance: The role of rehabilitation in reducing criminality of chronic serious juvenile offenders*. Rand Report R-3214-OJJDP.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Henggeler, S. W., Schoenwald, S. K., Borduin, C. M., Rowland, M. D., & Cunningham, P.B. (1998). *Multisystemic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uildford Press.
- Kazdin, A. E. (1995).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Kazdin, A. E. (1996). Problem solving an parent management training in treating aggressive and

- antisocial behavior. In E. D. Hibbs & P. S. Jensen (Eds.), *Psychosocial treatment for child and adolescent disorders: Empirically based strategies for clinical practice* (pp 377-40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Cord, J. (1982). The Cambridge-Sommerville Youth Study: A sobering lesson on treatment, prevention and evaluation. In A. J. McSweeney, W. J. Femouw, & R. P. Hawkins (Eds.),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for Youth Treatment*. Springfield IL.: C.C. Thomas.
- Mulvey, E. P., Arthur, M. W., & Reppucci, N. D. (1993).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cy: A review of the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133-167.
- Tate, D. C., Reppucci, N. D., Mulvey, E. P. (1995). Violent juvenile delinquents: Treatment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for action. *American Psychologist, 50*, 777-781.
- Valliant, G. E., & Perry, J. C. (1985). Personality disorders. In H. I. Kaplan & B. J. Sadock (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4th edition*.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원 고 접 수 일 : 2001. 9. 13.

수정원고접수일 : 2001. 11. 28.

게재결정일 : 2002. 1. 3.

K C I

Individual Counseling by Volunteer Counselors and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An explorative study

Eunae Hong

Kyung-Ja Oh

Yonsei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effect of individual counseling by volunteer counselors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recidivism rate during the 2-year probation period of 171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who were provided with monthly individual counseling by volunteers (Counseling Group) to the recidivism rate of another group of 256 juvenile delinquents monitored through routine monthly meetings with probation officer(Non-counseling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rate of recidivism did not differ for the Counseling(31%) and Non-counseling Group(39%). Stepwis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es with regard to recidivism during the 2-year probation period revealed that age and prior record of delinquency (Counseling Group), and history of running away from home prior to age 15 and mother's education level(Non-counseling Group)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discriminant function in the respective groups.

Keywords : Juvenile delinquents, individual counseling, recidivism